

배포

2025. 10. 1.(수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# 내, 반지하주택 입주민 안전 위해 재난 예방 체계 강화

- 반지하 미이전세대 대상 '가가호호 침수대응교육' 실시, 대피요령 등 안내
- 재난 대응 취약세대 대상 집중 모니터링 시행, 관리체계 고도화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의 재난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.
- LH는 여름철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, 지상층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'주거상향 사업'과 더불어 침수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지속 시행해 왔다.
  - 지난 '23년 LH는 전체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차수판, 침수경보 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쳤으며,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 1,810호\* 중 1,082호의 지상 이주를 도왔다.
    - \* '04년 매입임대 사업 초기 단계 취득한 반지하 세대로, 입주자 주거 안전 등을 이유로 '20년부터 반지하 공급 중단
- 최근 기후 변화로 여름철 도심 내 기습·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, LH는 반지하주택의 재난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여 입주민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.
  - 먼저, 입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. LH는 지난 6월부터 반지하 세대 입주민을 대상으로 '일대일 가가호호 침수 대응 교육'을 시행했다. 세대별로 △침수 시 대피요령 △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관리방법 △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했다.

- 아울러 방문 시 파악된 세대별 특이사항(거동불편, 장애여부 등)을 토대로 재난 대응 취약 세대를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도 시행한다.
- 또한 지역별 주거행복지원센터(구 관리사무소), 지역 통장 등과 협업하여 해당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령하면 즉각적인 순찰을 시행하고, 현장점검 시 침수 징후가 발견되거나 입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 내 대피시설·숙박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반지하주택 관리 체계도 고도화한다. LH는 ‘재난관리 플랫폼’에 반지하주택 위치정보를 등록하고 극한 호우에 따른 위험 가구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.

\* 기상청·산림청 등 외부 재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재난 상황 즉시 파악 가능

- 한편, LH는 올해 여름철 호우경보가 발효될 때마다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 긴급 점검\*을 진행했다. 실제로, 지난달 13일 고양시에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가 커지자, 침수 위험가구(10세대)에 양수 작업 및 입주민 대피를 지원해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도 했다.

\* 총 854세대 점검 진행, 일부 침수위험가구 반복 점검

-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“기후 변화로 주택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입주민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LH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안전기획처	책임자	팀 장	신동범	(055-922-0000)
		담당자	차 장	홍성범	(055-922-4980)